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 제막식 있어

✎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1.04.29 05:54

노동자들의 존엄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김용균을 기억하고 일터와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 합니다. 고 김용균의 추모조형물에는 '산재는 살인'임을, '안전은 생명'임을, '더 위험한 비정규직은 이제 그만해야'함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임을 전제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제막식이 있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이 있었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냈다.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2021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김용균 재단은 지금도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과 기업주들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를 바꾸고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며,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함으로 다른 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변화를 위해 행동하려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을 세운다고 전하고 있다.

조형물은 한국서부발전과 합의를 이루고 2년여만에 세워진것이다.



[김용균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재단이사장 발언 전문]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4월말 5월이 곧 다가옵니다. 만물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저는 아직 2년전 아들 사고 때 충격으로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없이 보고 싶은 내 아들 용균이는 요즘은 꿈에서조차 잘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을 해도 허망하고 행복은 이제 남들만 누릴수 있는, 저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들이 일했던 현장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위험천만한 현장이었습니다. 원하청이 분리되면서 안전은 아무도 책임이 없도록 만든 구조 속에 처참하게 스러진 아들에게 비정규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공공기관조차 사람성을 거부당했습니다. 그저 생산을 위해 쓰여진 노예나 부품처럼... 훼손돼 없어지면 갈아 끼우는, 존재자체가 가치가 없는, 하찮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만큼은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신이었습니다. 부당한 죽음을 당한걸 알게 되면서 저는 땅을 치고 그동안 만연한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원망하고, 못나 빠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몸서리치도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깊은 아픔은, 이제는 아들 대신 제 곁에서 평생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이켜 봤습니다. 아들을 잃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으로 더 이상은 아들과 같은 헛된 죽음을 막겠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 동지들의 도움으로 정말 쉽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진상규명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통과시킨, 용균이를 기만한 산안법은 또 다른 죽음을 전혀 막지 못했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기업주들의 철면피한 살인 만행을 강한 처벌로서 잘못함을 인정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기업 스스로 만들게끔 법통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용균재단을 만들어 용균이가 들었던 피켓의 의미를 받아안고 그 길을 향해 산재피해자가족 다시는과 함께 손잡고 깨끗하

게 달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국민들이 뭉쳐서 법제정까지 실행시켰고 언론도 계속해서 안전 경각심을 갖도록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을 만들고 있음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깐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선 안되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서부발전 안에 용균이 조형물을 세우자고 사측과 합의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늦게나마 '그 쇠물 쓰지마라' 노랫말처럼 이제라도 회사 정문 앞에 세울 수 있게 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용균이 형상을 여기에 세우는 이유는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또 다른 용균이들과 후세들이 일하면서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며,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의 여기저기를 다니며 아들의 죽음을 매번마다 되뇌이며 목소리 내는 만큼 더 힘들어 가중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처럼 제 아들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이,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과 권리와 사람의 가치가 보장될 때까지 꾸준히 함께 노력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